

# 도내 수출실적, 3개월 연속 성장세

### 김영준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장 “중간재 기업 수출 애로 파악·해소로 높은 성과 이어지도록”

도내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증가율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014년 7-9월 이후 2년 9개월만이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서 발표한 '6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8% 성장한 5억 8,491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 17.8%는 전북의 과거 기록과 비교할 때 2012년 2월 이후 최고치이며, 6월 전국 기준 증가율 13.6%를 4.2% 웃도는 수치다.

전북지역의 1위 수출 품목은 자동차가 차지했으며, 자동차부품과 합성수지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부품과 합성수지 등이 두 자릿수의 성장세로 전북 수출을 강하게 견인한 가운데 자동차를 제외한 수출 10위 이내 전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또한 농기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 1월부터 무역통계 품목분류 체계(MIT)가 일부 변경되면서 '농업용 트랙터'가 자동차에서 농기계로 조정된 것이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북의 6월 수출 대상국 1위 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45.4%의 성장률을 기록한 미국이 차지했고, 2위에 오른 중국도 19.1%로 올 1월부터 시작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인도와 알제리를 제외한 10위 이내

모든 국가가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6월 중국 수출은 '합성수지'(96.1%) 및 '동제품'(100.5%)이 성장세를 주도했으며, 미국 수출은 '농기계'(2300만 달러), '철강 관 및 선'(1900만 달러) 등 두 제품의 비중이 48.8로 대미 총 수출(8600만 달러)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북 지역은 총 수출 중 자본재 및 중간재의 비중이 86.0으로 절대적인데, 올 들어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전북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6월에도 자본재는 25.4%, 중간재는 19.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한 3억 7,104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 1,388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김영준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장은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가 완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북 지역의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전북은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높아 이 같은 외부적인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경제도 연초 전반기 이상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북 지역의 주력산업인 중간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파악·해소함으로써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의 시기가 높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 ‘건설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청술·우진·미루건설 국토부장관상 수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 70년 세상을 새롭게! 모두를 이롭게!’라는 주제로 ‘건설 70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배진석 대표



김종원 대표



김국원 대표

이날 기념식에서 치러진 건설유공자에 대한 포상에서 도내 종합건설업체인 청술건설과 우진건설, 전문건설업체인 우진건설이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인 청술건설 배진석 대표는 헌신적인 사회공헌사업과 국가의 공공 편익사업의 성실시공으로 지역사회와 국가건설 산업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우진건설 김종원 대표는 탁월한 경영능력과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으로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발

전에 기여한 공이다.

전문건설업체인 미루건설 김국원 대표는 지난 2001년 회사를 설립하고 책임시공과 견실시공을 통해 건설업계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현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대의원 및 전북도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인재용 기자

## 고온에 적응하는 오리 유전자 발굴

### 농진청, 기후온난화 적응 집단 육성 활용 기대

온 몸이 털인 오리는 더위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정 유전자를 지닌 오리는 고온에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고기용(육용) 오리의 대표품종인 ‘백색 북경오리’에서 고온 노출 시간에 따라 비슷하게 나타나는 유전자무리를 분류하고, 잘 적응하는 유전자무리의 기능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가축 생산성 향상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환경적응성이 높은 오리 품종을 육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닭과 함께 가금 산업의 대표 가족인 오리는 15°C 25°C가 적정 사육온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고온 임계(한계)온도는 26.7°C 정도이다.

30°C 이상 고온이 계속되면 체온이 상승하고 물 먹는 양이 늘고, 사료섭취량은 감소하고 증체량(체중증가량)이 떨어지며 심한 경우 폐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구진은 오리를 25°C의 일반 환경과 30°C의 고온 환경으로 나눠 3시간과 6시간을 지속적으로 노출했을 경우, 근육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발현 유형에 따라 6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중 고온이 지속될수록 고온 초기에 비해 유전자 발현이 줄어들며 잘 적응하는 ‘적응 유전자무리’를 확인했다.

적응 유전자무리와 관련된 대사경로들은 고온 상태에서 에너지 항상성과 면역 체계와 관련된 효소(Rapl), 내분비계 생리물질(아디포사이토킨), 지방산 생합성 등으로 나타났다.

고온 조건의 적응 차등발현유전자 기능을 분석한 결과, 신경활성 수용체 등과의 유익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피아이케이3 계열(PIK3R6, PIK3R5, PIK3C2B)의 유전자 무리는 오

리의 고온 스트레스 적응 기작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해당 대사경로에 작용하는 주요 유전자(PIK3 계열 등) 정보를 더 위에 견디는(내서성) 유전체 분석과 병행함으로써 온난화에 따른 가금류의 생산성 저하 방지효과 구명과 관련 기능을 높은 육종 기반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박종은 농업연구사는 “고온 적응에 관여하는 유전자들로 오리의 고온 적응 기작을 이해하면서 기후온난화에 대응해 고온적응성이 높은 집단을 육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며 “닭이 보유한 내서성 유전체 분석 연구를 추가해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중 고온이 지속될수록 고온 초기에 비해 유전자 발현이 줄어들며 잘 적응하는 ‘적응 유전자무리’를 확인했다.

적응 유전자무리와 관련된 대사경로들은 고온 상태에서 에너지 항상성과 면역 체계와 관련된 효소(Rapl), 내분비계 생리물질(아디포사이토킨), 지방산 생합성 등으로 나타났다.

고온 조건의 적응 차등발현유전자 기능을 분석한 결과, 신경활성 수용체 등과의 유익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피아이케이3 계열(PIK3R6, PIK3R5, PIK3C2B)의 유전자 무리는 오



###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상반기 커리어 캠프 성료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본점 19층 연수원에서 ‘상반기 커리어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도내 대학교 3~4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취업 역량 및 리더십 등을 개발하여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캠프기간동안 학생들은 비전탐구, 드림리스트 작성, 직업트렌드 탐색,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액션플랜 작성,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된 참여형 강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의 특강, MBC 이창기 취재부장의 유익한 면접 이야기, 전북은행 2017 신입직원

및 재직직원의 취업 토크쇼, 인사담당자의 Q&A 등을 실시해 직장 생활의 경험담 뿐 아니라 취업 노하우등을 공유하며 다양한 강의 및 체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학교 4학년 한상환 학생은 “금융권 취업을 도전하며 막연했던 요즘, 커리어캠프를 통해 나의 비전을 설계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느끼며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에 참여한 학생 전원은 전북은행 대학생 봉사단으로 가입해 전북은행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해 나눔 문화 확산과 착한인성 함양에 앞장설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 전북상협, 국정과제 주요 현안 환영하고 나서

전북상공회의소의 협의회가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 등 전북 주요 현안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19일 새 정부의 비전과 국정목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새만금, 탄소산업클러스터, 안전보호용복합산업, 탄소소재국가산단 등 5개 전북 공약사업, 상용전기차와 무주태권도원 성지화 등 2개 현안관련 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반영 된데 대해

지역상공인 모두는 전북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 중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에 새만금을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구축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은 새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 농어촌공 전북, 농지은행사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쌀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본부는 올해 1,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중이며 6월 말까지 연간사업비의 75%인 825억원을 집행해 도내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도한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에 261억원에 지원해 83농

가가 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를 촉진하기 위한 경영이양지원금 지급으로 103억원을 집행해 총 4,927농가의 고령농업인에게 평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http://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본인의 예상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인재용 기자

www.jjnh.co.kr

##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호박



미나리



장미



배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 오태식  
상임이사 (경제) 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중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구,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 Good 농산물